11월 23일 AI 아침 브리핑

국내 소식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국내 대학의 AI 평가 연구, 그리고 AI 업계를 흔드는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반도체·데이터센터 영향입니다.

---

1. GS건설, 피지컬 AI로 고강도 작업 자동화…사전검증센터에서 로봇 시험

구분: 건설 AI **일자·출처**: 2026-11-22, 뉴스1 건설AX 기획 보도

- 뉴스1이 건설사 AI 전환 현장을 점검하는 건설AX 기획 두 번째로 GS건설의 피지컬 AI 적용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콘크리트 레벨링 로봇 시험, 대동로보틱스와 공동 개발한 AI 화재감지 CCTV 실증, 증강현실(AR) 기반 품질검사 디지털화가 골자입니다.
- 핵심 거점은 경기 용인 GS건설 기술연구소의 사전검증센터(PoC센터)입니다. 새 기술과 건설로봇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성능과 생산성, 현장 적용성을 미리 검증하는 시설로, 개별 로봇의 성능뿐 아니라 작업자와 로봇의 역할 분담, 작업 순서와 이동 동선, 선후행 공정과의 연계까지 점검합니다(GS건설 뉴스룸).
- AI 화재감지 CCTV는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용입니다. 올해 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차량 전조등, 조명 반사 같은 오경보 요인을 줄이는 알고리즘 고도화를 거쳤고, 성능 평가 방법 관련 특허도 출원됐습니다(한국경제 보도).
- 회사는 사내 혁신협의체(ICC)를 통해 현장의 생산성 저하 요인과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스타트업과 공동개발이나 투자로 협력한 뒤 검증을 통과한 기술만 현장에 확산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 주의: 보도된 내용은 대부분 시험·실증 단계이며, 실제 현장 적용 후의 성과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뉴스1 원문은 본문 전부를 확인하기 어려워(본문 추출 제한) GS건설 뉴스룸과 한국경제 보도로 사실 관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안(BIM 연계): 로봇의 동선과 작업 순서를 사전에 검증하는 PoC 방식은 BIM 기반 시공 시뮬레이션과 결합해 가상 공간에서 1차 검증을 마치고 실물 검증으로 넘어가는 2단계 검증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원문: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361011 보조 출처: https://gsconst.co.kr/en/Pr/StoryView.aspx?BbsId=STORY&BbsInfoId=1572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29953P

2. 중앙대 연구팀, AI가 보기 순서에 흔들리는 원인 규명…EMNLP 2026 본 학회 발표

구분: 국내 AI 연구 **일자·출처**: 2026-11-22, 중앙대 생성적AI연구실 발표(뉴스와이어)

-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생성적 인공지능 연구실(지도교수 이민혁)이 AI가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 순서에 따라 답을 바꾸는 '위치 편향'의 원인을 밝혀,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학술대회 EMNLP 2026 본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10월 24~29일, 부다페스트).
- 방법이 독특합니다. AI가 문제를 읽고 답을 내기까지 거치는 수십 단계의 계산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맞힌 경우의 계산 결과를 틀린 경우에 한 단계씩 바꿔 넣어 어느 단계에서 정답이 되살아나는지 추적했습니다.
- 결과: 편향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계산의 앞쪽 60% 구간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험한 모델 가운데 Llama-3.2-3B는 이런 영향이 모두(100%) 이 구간에 몰려 있었고, SmolLM3-3B도 68.5%가 이 구간에서 나타났습니다.
- 의미: 보기 순서를 여러 번 섞어 점수를 평균 내는 기존 보정 방식은 점수만 고르게 만들 뿐 편향 자체는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정답을 고르는 능력은 그대로 두고 편향만 바로잡도록 편향에 관여하는 내부 요소 후보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 활용: 기업이나 기관이 AI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 점수가 보기 순서 같은 우연에 좌우되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고,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는 로봇 AI(비전-언어-행동 모델, VLA)가 물건 위치나 말 순서 같은 엉뚱한 단서를 보고 움직이는지 검증하는 데도 확장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기대합니다.
- 주의: 연구실 보도자료 기준으로, 수치 재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연구용 AI 컴퓨팅 지원 사업으로 수행됐습니다.

제안(BIM 연계): 시공 현장에 VLA 로봇이 도입될 때, 로봇이 지시 내용이 아니라 위치·순서 같은 단서에 반응하는지 점검하는 검증 방법론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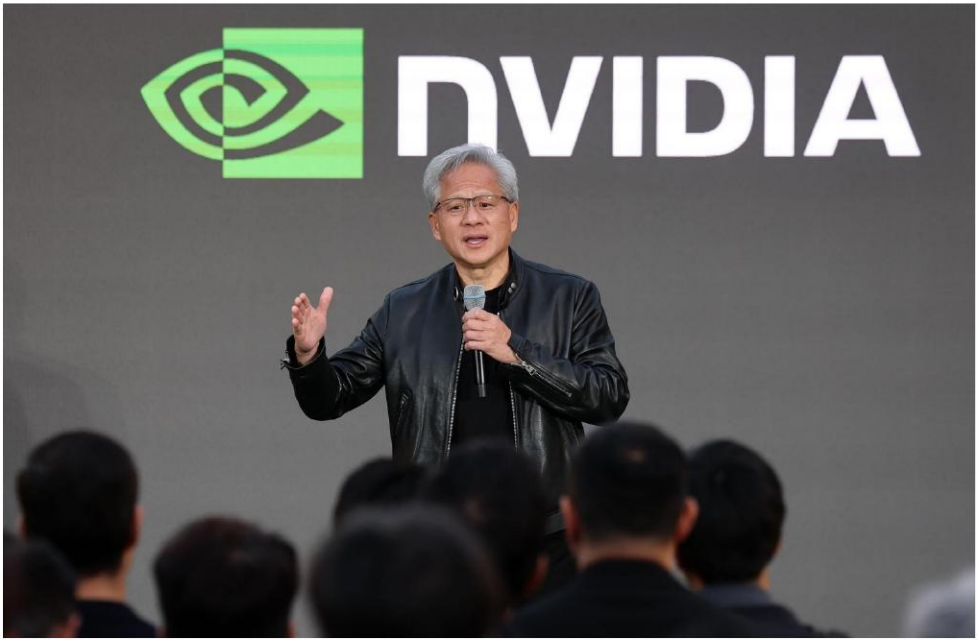


원문: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47749

3. 엔비디아 리스크 확산에 트럼프 데이터센터 과세 경고…국내 반도체·건설 영향 주목

구분: AI 산업 동향 **일자·출처**: 2026-11-12~22, 엔비디아 공식 발표와 로이터·블룸버그·FT·AP 등 원보도, 연합뉴스 종합

- 엔비디아 이사회가 11월 12일 젠슨 황 CEO의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시 발효이며 최고재무책임자(CFO) 콜레트 크레스가 임시 CEO를 겸임하고, 이사회가 상임 CEO 후임을 물색 중입니다. 하비 존스가 첫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습니다(엔비디아 뉴스룸 공식 발표).
- 로이터는 11월 2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이 엔비디아의 잠재적 회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조사 착수를 처음 전함). 조사의 구체적 쟁점과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불법 판매와 투자자 대상 허위 설명 여부를 가리는 조사(11월 19일 발표)에서 주법 형사 위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초기 단계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 FT는 11월 17일 엔비디아 싱가포르 법인의 2025년 외부 매출이 1,0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 늘어 전 세계 매출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지역별 매출 집계 기준을 고객 청구지에서 고객 본사 소재지로 바꾸면서 싱가포르 항목이 분기보고서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제3자가 10-Q 보고서로 변경 시점을 확인).
- 의회 조사도 본격화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황 전 CEO는 12월 1일 하원 3개 위원회의 비공개 조사에 응하기로 했고, 상원 은행위원회 공개 증언에도 합의했습니다(날짜 미정). 크레스 임시 CEO는 17일 실적 발표에서 고객 투자와 보증에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월 20일 미국 기업의 해외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AP·BBC). 구체적 방안이나 집행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실화되면 SK와 아마존이 건설 중인 울산 AI데이터센터 같은 국내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합뉴스).
- 국내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장기 공급계약을 확보한 만큼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고 해외 데이터센터 투자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선에서 그치면 전체 수요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연합뉴스 인용 전문가).
- 주의: 조사와 혐의는 모두 미확정 단계입니다. 과세는 구체안이 없는 발언 단계이고, 전망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원문: https://www.yna.co.kr/view/MYH20261122013900038 원보도: https://nvidianews.nvidia.com/news/nvidia-announces-ceo-transition / https://www.reuters.com/3fec1b0a85a0/world/us-secs-nvidia-probe-is-examining-potential-accounting-issues-sources-say-2026-11-20/ / https://news.bloomberglaw.com/artificial-intelligence/california-nvidia-probe-covers-potential-criminal-law-violations / https://apnews.com/article/trump-artificial-intelligence-data-centers-f1ac03b73d13445400eeed8631d9d879 / https://www.cnbc.com/2026/11/20/jensen-huang-nvidia-senate-testimony.html / https://www.axios.com/2026/11/17/nvidia-ai-startup-investment-discipline-kress